

# 새싹편지 7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3년 07월호

##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 3학년, 지구촌 체험관과 시민안전체험관 견학을 다녀오다.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소화기 사용법 체험을 하고있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7월 3일, 3학년 학생들이 다문화의 이해, 아동 간호학 수업에서 지구촌 체험관과 시민안전체험관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지구촌 체험관의 이번 전시는 '지구촌에 피운 우담바라' 라는 주제로 한국국제협력단이 개발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인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세 나라의 소개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하는 일과 여러 문화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뒤 각자 자유 시간을 보내고 시민안전체험관으로 향했다.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실제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과 비슷한 지진체험, 태풍 발생 시 바람의 위력을 느낄 수 있는 풍수해체험, 불이 난 상황을 탈출해보는 연기체험, 소화기 사용법 체험, 응급처치실습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해 보았다. 또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도 보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안전과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낄 좋은 기회가 되었다.

### "ECE Students Visits Joongang and Jeonwon Kindergarten"

On June twenty seventh, senior ECE students visited the Joongang Kindergarten in Seoul. Since it is attached to the Hanguk Elementary School, its' building looks like Elementary School building.

On July second, students visited Jeonwon Ki

ndergarten. This Kindergarten is nature friendly and free.

Through the kindergarten visits, the students learned more about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each kindergarten.

### 어린이와 색채 미학 '템페라 기법' 을 체험하다.



재학생들이 체험한 템페라 기법의 모습이다.

어린이와 색채미학은 어린이 심미교육 연구회의 주관으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에서 진행되었다. 대전, 충청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어린이와 색채미학에 24명의 재학생들이 참여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부산대학교 임부연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템페라 기법, 젖은 수채화, 동양 채색화 중 재학생들은 템페라 기법을 체험하였다.

재학생들이 체험한 템페라 기법은 템페라 물감을 가지고 하는 활동으로 물을 섞지 않는 기법과 물을 섞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형태를 그리지 않고, 색과 다양한 농도를 느낄 수 있는 기법이다.

템페라 기법을 체험한 학생들은 유아들에게 물감 영역을 제시해주어 유아들이 물감을 탐색하고 놀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의 작품을 보고 뻘한 질문을 하지 말고 색과 그림에 대한 읽어주기를 해야겠다고 전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불안한데 맞을까 말까?’**



여성 암 중 사망률 2위인 자궁경부암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대학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반 이상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

았다.

최근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HIV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이 발생해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신체마비나 운동 이상, 근육 떨림 등 신경계 부작용이 주요 증상이다.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이 허가된 많은 나라에서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심각한 부작용 보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중단한 나라도 없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국내에서는 큰 부작용이 없지만, 자궁경부암을 100% 막아주는 것이 아니므로 맹신하지는 않되, 자신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교사-유아의 상호작용방법**



한 학기 동안 2학년 A반 학생들은 우송유치원에 교육봉사를 나가 60시간씩 보조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경험하고 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배웠다.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하는 경험 대부분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유아와 교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유아는 성장하고 발달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관점을 형성한다. 따라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가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대부분이 실습이나 교육봉사를 나갈 시에 하는 잘못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다.

첫째, 학생들은 영유아를 비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점심이나 간식을 먹을 때, ‘00이가 김치를 잘



먹는 것 좀 봐’ 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가 김치를 먹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하게 만든다.

둘째, 너무 칭찬을 과하게 하면 유아가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셋째, 영유아의 결과물을 보고 칭찬을 하는 것보다 영유아가 만드는 과정을 보며 칭찬을 하는 것이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 관찰 및 실습 강의를 들은 2학년 학생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교육봉사를 했을 때의 상호작용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교육봉사를 나갈 학생들과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호작용에 대해 더 공부하여 올바른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을 하길 바란다.

**우리들의 이야기**

**옥천 정지용 문학 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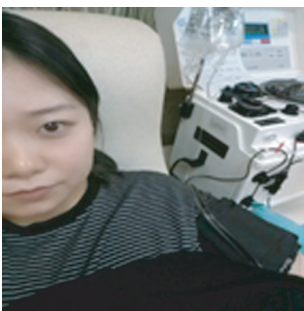


시인 정지용 선생님의 동상 앞에서 운소라 학생과 김지수, 손유리, 이강석 학생의 모습이다.

우연히 학교 게시판에서 문학 기행을 홍보하는 글을 보게 되었고 주말에 무료로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더 많은 교양을 쌓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다.

2013년 7월 13일 토요일에 유아교육과 1학년 이강석, 김지수, 손유리와 함께 가게 되었다. 아침 9시에 교양 교육원에서 인원 체크를 한 후 총 21명의 학생이 옥천으로 출발하였다. 도착하여 가장 먼저 정지용 선생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을 30분 동안 들었다. 학교 다닐 때 정지용 선생님의 시를 많이 접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들으니 신기하기도 하고 정지용 선생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셨고 20대에 '향수' 이외에도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셨다.

**나눔 활동, 헌혈**



내가 처음 헌혈을 한 계기는 봉사를 위해서라기보단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7월 18일 학교가 끝난 후 시내에서 옷을 구경하다가 '헌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으능정이 헌혈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듯 평소 헌혈

헌혈하는 김지윤 학생 봉사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 사람이 매우 없을 줄 알았으나 대기표를 뽑고 기다릴 만큼 사람이 많아서 놀랐었다. 먼저 전자문진을 하는데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는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다. 헌혈하기 전이며 헌혈 상담하기 전에 많은 질문이 있어 헌혈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생애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에는 정지용 문학관 내부를 둘러보았다. 정지용 선생님의 생애 연표가 있었고 시 낭송하는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이강석, 김지수, 손유리와 같이 시를 낭송해보기로 하였다. 그 중 나는 '유리창'을 낭송했다. 그리고 프로젝터에 두 손을 대어보며 글씨를 받아보는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정지용 선생님의 생가를 둘러보며 선생님의 삶을 느껴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낮은 굴뚝이었는데 그 시대에는 밥을 지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굴뚝을 낮게 만들었다고 한다. 정지용 선생님 생가 주변에 옥영수 여사의 생가도 있어서 살펴봤는데 건물 하나하나가 모두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차가 많지도 않았는데 외제 차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견학을 다 한 뒤에 점심으로 충청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호박 꼬지 찌개를 먹었다. 특이한 맛이었고 모두 정말 맛있게 먹었다. 점심을 먹는 중에 소나기가 억세게 와서 걱정되었지만,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비가 그쳐 정말 다행이었다. 서둘러서 장계 관광지과 향토전시관에 가서 옥천에 대해 알아보고, 옛날 화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그 후 휴식시간을 가지며 친구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사람들과도 이야기해보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이번 문학 기행을 토대로 앞으로는 학교의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게 되었다. 전자문진 후 혈압을 재고 헌혈상담을 했다. 적혈구 수가 부족해 혈장만 할 수 있다고 했다. 적혈구 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땐, 헌혈하지 말까 망설였다. 하지만 들어와서 검사도 받았는데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 헌혈의자에 앉았다. 혈장은 약 40분 정도 걸렸다. 헌혈한 뒤엔 의자에 앉아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상품을 선택하였다.

헌혈증을 받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봉사는 돈과 시간을 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내가 주변을 돌아보며 관심을 두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누는다면 그것 또한 봉사이며 그러한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더 큰 가치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봉사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되새기면서 앞으로는 나눔 활동을 가까이할 것이다.

## 우송유치원 소식

### 물놀이



우송유치원에서 6월 말에서 7월까지 실외자유선택활동으로 물놀이를 진행했다. 유아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만 3세와 만 4, 5세로 나누어 물놀이를 진행하였고, 6월 말 물놀이 초기 단계에서는 물을 탐색하는 활동을



하였다. 물이 익숙해진 7월 초부터는 물 풀장에서 물놀이, 유아들이 직접 만든 물총과 물 분수를 교구로 활용한 놀이, 비눗방울을 이용한 놀이, 세차놀이, 설거지놀이, 빨래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놀이를 진행했다.

### 여름 캠프



여름 캠프 오리엔테이션하는 모습이다.

우송유치원은 7월 24일 종업식 후 25일에 만 4, 5세를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실시했다. 캠프는 3층 신나는 방에서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되었다. 조별로 모여 인사 나누기, 조 구호 배우기, 조 표시, 조 글씨 꾸미기를 한 뒤 교실을 둘러보았다. 가면 만들기, 저녁식사 준비하기, 막대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3층 신나는



각 조별 표시와 글씨 꾸민 것을 둘러보고 있다. 방에서 선생님들의 동극 '세 마리 염소'를 들은 후 대학교 캠퍼스를 활용한 보물찾기, 캠프파이어, 팀별 장기자랑, 추적놀이와 같은 다양활동을 진행하였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유아들이 불꽃을 보고 '반딧불이 같다.', '용이 불을 뿜는 것 같다.', '파티 같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였다.



선생님들의 동극 '세 마리 염소'를 듣고 있는 모습이다.



조별 발표와 캠프파이어를 하는 모습이다.

# 동아리 활동



어린이생활문화연구회는 교직인성을 알리고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설문 조사를 통해 나온 교직인성 5계명과 로고가 부착된 파일을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실행하였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벤트가 실시 중인 페이지에 교직인성으로 4행시를 짓고 페이지를

공유하여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었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 중 3명을 선발하여 상품을 전달하였다. 많은 유아 교육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교직 인성으로 적절한 4행시를 지어주었고 참여한 학생 중 1학년 김지혜 학생, 3학년 이정현, 임수현 학생이 선발되었다. 학생들의 4행시를 함께 살펴봅시다.

김지혜 학생의 4행시 **교** 교류하며 우선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관찰해 꼼꼼히 파악하고  
**직**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스스로 배우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며  
**인** 인내가 필요하고 항상 성품을 바르게 하여 모범을 보이는  
**성** 성공보다는 보람을 중요시하는 직업이 바로 유아 교사이다.

이정현 학생의 4행시 **교** 교사는 유아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직** 직접 모범이 되어 행동해야 한다.  
**인** 인성교육의 기초는 유아들이 모방하는  
**성** 성인들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임수현 학생의 4행시 **교** 교구를 잘 만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직** 직장 구해서 돈 버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나요?  
**인** 인간다운 삶을 유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 성심성의껏 교육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린이생활문화연구회는 교직 인성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 게시와 파일 배포, SNS 이벤트를 하며 교직 인성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많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직 인성을 바로 알고 실천하였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였다.

어린이 생활 문화 연구회의 이벤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직 인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였으며,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전했다.

##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윤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